

2025학년도 10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1	④	2	④	3	⑤	4	⑤	5	④
6	⑤	7	⑤	8	④	9	④	10	④
11	①	12	④	13	②	14	①	15	③
16	②	17	③	18	④	19	⑤	20	⑤
21	③	22	⑤	23	⑤	24	①	25	④
26	③	27	①	28	①	29	⑤	30	①
31	②	32	③	33	⑤	34	⑤	35	①
36	⑤	37	①	38	②	39	③	40	④
41	③	42	⑤	43	②	44	②	45	④

[화법]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3문단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라는 질문을 하고 ‘배 부분에 있는 육아낭이라는 주머니 덕분에 수컷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수컷 해마의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이유를 전달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4문단에서 용치놀래기는 ‘수컷이 사라지고, 암컷만 남은 상황’에서 암컷이 수컷이 되며 ‘몸에 수컷의 특징인 큰 점’이 생기는 변화가 있다고 설명할 뿐, 몸의 크기를 바꾼다고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수컷은 짹을 찾아내면 ~ 한 몸처럼 되죠.’라고 하며 [자료 1]을 ⑦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암컷이 수컷의 육아낭 안에 ~ 출산한다고 해요.’라고 하며 [자료 2]를 ⑨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이것은 육아낭 내부 구조를 ~ 배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하며 [자료 2]를 ⑨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무리에서 가장 큰 암컷이 ~ 큰 점이 생깁니다.’라고 하며 [자료 3]을 ⑩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생 3’은 ‘발표 내용이 정확한 걸까?’라고 물으며 발표 내용이 정확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수컷 아귀가 암컷을 어떤 방법으로 찾았나?’는지 ‘그 내용을 더 찾아봐야겠어.’라고 하며 발표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왜 해마는 ~ 좋았을 텐데.’라고 하며 알고 싶은 정보가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3’은 ‘과학 탐구 주제로 ~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며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심해와 관련하여 ‘다큐멘터리’에서 본 배경지식을, ‘학생 2’는 해마와 관련하여 ‘책에서 읽었던’ 캉거루의 육아낭에 대한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 · 작문]

4.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 이해하기

(가)의 ‘학생 1’의 발화에서 회의 참여자의 발언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에서 ‘오늘은 답장에 들어갈 내용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려고 해.’라며 회의의 목적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에서 ‘다들 내가 공유한 ~ 정리해 왔지?’라며 회의 참여자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에서 ‘다음으로는 ~ 선택해야 해.’, 세 번째 발화에서 ‘마지막으로 ~ 궁금해 했어.’라며 회의 참여자에게 이어서 논의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의 네 번째 발화에서 ‘설문 조사 결과는 내일까지 보내 줘.’라며 회의 이후 수행해야 할 일을 회의 참여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발화인 ‘가능하긴 한데 ~ 영상이 흐리게 보일 거야.’의 일부인 ‘영상이 흐리게 보일 거야.’를 재진술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인 ‘교내 학창 동아리’가 ‘공연 중에 영상을 보여 준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가)의 ‘학생 2’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연주자들 공연이 잘 안 보일 것 같’다는 것은 무대 조명의 밝기를 낮출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다. (나)의 5문단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닥 조명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조명의 밝기를 낮출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언급하여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에서 ‘그럼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으로 정하자.’에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을 선택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나)의 2문단에서 ‘먼저,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을 연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와 ‘학생들에게 ~ 느껴질 것 같습니다.’에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을 선택하겠다는 내용이 그 이유를 언급하며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학생 3’의 세 번째 발화에서 ‘그건 우리끼리 ~ 설문 조사를 맡을게.’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곡을 알아보자고 한 바가 나타나 있다. (나)의 3문단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 △△곡이었습니다.’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곡을 알아보자고 한 바가 설문 조사를 한 결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학생 3’의 네 번째 발화에서 ‘그런데 창작곡 목록 중에 ~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거야.’에 현대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곡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나)의 4문단에 ‘현대시 ○○에서 ~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학생들이 ~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에 현대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곡에 대한 내용이 학생들의 예상되는 반응을 언급하며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학생 3’의 네 번째 발화에서 ‘이 곡은 ~ 어때까?’와 ‘학생 2’의 네 번째 발화에서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 의미 있다고 생각해.’에 연주곡을 추가로 요청하자고 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나)의 4문단에서 ‘주가로 요청드릴 ~ 좋습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에 연주곡을 추가로 요청하자고 한 내용이 연주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언급하며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국악에 다양한 음악이 어우러져 탄생한’에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국악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특성이 드러나 있고, ‘뜻깊은 축제를 만들어 줄 것’에 공연이 갖는 의의가 드러나 있으며 ‘무지개처럼’에 비유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2, 3, 4문단의 도입부에 각각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라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글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ㄱ-④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방향·탈취 용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 ‘향’이 ‘72.6%’, ‘성분의 안전성’은 ‘3.0%’로 성분보다 향을 중시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성분보다 향을 중시하는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ㄴ의 ○○국 소비자 단체가 ○○국 정부에 생활 화학 제품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 내용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보다 향을 중시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보다 향을 중시하는 이유로 제시하기 적절하지 않다.

① ㄱ-④를 보면 국내 방향·탈취 용품 시장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문단의 ‘최근 방향·탈취 용품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ㄴ의 ‘해외 ○○국 정부는 ~ 표시 대상에 포함하였다.’에서 ○○국 정부가 유해성을 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추가로 성분 표시 대상에 포함한 해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2문단의 ‘하지만 함량이 ~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에서 함량이 규제된 휘발성 유기 화합물 중 일부가 아직 성분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상황과 관련지어 성분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 사례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ㄷ의 ‘이 제도는 ~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에서 각 성분의 안전성을 등급화하여 표시하는 제도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 성분의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4문단에 제시된 ‘성분 표시를 잘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성분의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돋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ㄱ-④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방향·탈취 용품을 구매할 때 성분 표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ㄷ에서 ‘요즘 소비자들은 ~ 고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4문단의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조언에 따른 글쓰기

<보기>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 유용한 성분이다.’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지니는 효용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라는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상하 관계 이해하기

2문단에서 ‘의미 성분 분석이란 단어의 의미를 더 작은 의미 단위인 의미 성분으로 분해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하위어는 상위어의 의미 성분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른 의미 성분을 추가로 지닌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에서, 동일한 상위어를 공유하는 같은 충돌의 단어를 공하위어라고 하였

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서 의미 성분 분석은 각 단어가 해당 성분을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를 [+], [-] 기호를 통해 표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1문단에서 ‘상하 관계는 ~단어가 하위어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 이해하기

6문단에서 부분 관계를 ‘한 단어가 다른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일부를 나타내는 관계’이며 ‘A는 B의 일종이다.’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관계라고 했으므로 ‘손가락’과 ‘손’은 부분 관계이다. 부분 관계에서도 ‘일방적 함의 관계가 성립할 수는 있다’라고 하였고 이때 ①의 1)이 참이면 반드시 2)가 참이고, 2)가 거짓이면 반드시 1)이 거짓이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하위어는 상위어의 의미 성분을 ~의미가 더 구체적이다.’라고 했고, ⑦의 ‘물고기’와 ‘동물’은 상하 관계이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동물’의 의미 성분은 [+생명체][+움직임][+아가미]로 분석되어 있고, ‘물고기’가 ‘동물’의 모든 의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하 관계이므로 적절하다. ③ ‘손가락’은 ‘손’이 지시하는 대상의 일부를 나타내는 관계이므로 부분 관계이고 부분 관계는 ‘A는 B의 일종이다.’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⑤ ⑩의 ‘개’와 ‘반려동물’은 5문단에서 ‘어떤 단어가 특정 문맥에서만, 다른 단어의 하위어로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사 상하 관계로 ①의 1)과 2) 사이에는 일방적 함의 관계가 성립하고, 3)과 4) 사이에는 일방적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문장의 성분과 짜임 적용하기

‘이번 책이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기’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지만, ‘읽히기’는 ‘읽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피동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내가 건강하기’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바라는’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분’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므로 적절하다. ③ ‘대회에 나가지 못했음’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나가지 못했음’은 ‘-지 못하다’라는 형태의 긴 부정이면서 능력 부정이므로 적절하다. ④ ‘환자를 어서 눕히라고’에 간접 인용절이 사용되었고, ‘눕히라’의 기본형 ‘눕히다’는 ‘눕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사동사이므로 적절하다. ⑤ ‘이곳이 어디냐고’에 간접 인용절이 사용되었고, ‘묻지 못했다’는 ‘-지 못하다’라는 형태의 긴 부정이면서 능력 부정이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ㅎ’과 관련된 음운 변동 이해하기

‘많은’의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놓고’의 ‘ㅎ’은 뒤의 ‘ㄱ’을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적절하다. ③ ‘꽂히다’에서는 받침 ‘ㅈ’이 뒤 음절의 첫소리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ㅊ’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적절하다. ④ ‘앓는’의 ‘ㅎ’은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 탈락하고 뒤의 ‘ㄴ’이 앞의 ‘ㄹ’을 만나 유음 ‘ㄹ’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적절하다. ⑤ ‘쌓네’의 ‘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이 된 후, 뒤의 ‘ㄴ’을 만나 비음 ‘ㄴ’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의문문 분석하기

⑦에는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의 종결 어미 ‘-뇨’가 쓰여야 하므로 ‘잇느뇨’가 적절하다. ⑨에는 궁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의 종결 어미 ‘-녀’가 쓰여야 하므로 ‘그러더녀’가 적절하다. ⑩에는 2인칭 주어가 쓰인 의문문의 종결 어미 ‘-ㄴ다’가 쓰여야 하므로 ‘求(구)흐는다’가 적절하다.

[인문]

[16 ~ 21] <출전> 애덤 샌델, 「편견이란 무엇인가」

16.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선입견에 대한 데카르트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선입견에 대한 하이데거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이해하기

(가)의 2문단에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의 판단을 ~ 이성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2문단에서 ‘데카르트는 선입견과 이성이 ~ 끝없는 경쟁을 벌인다고 보았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3문단에서 ‘데카르트의 관점에 따르면 ~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2문단에서 ‘선입견은 세대와 세대가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3문단에서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 ‘현존재’라고 칭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나)의 3문단에서 ‘선입견은 인간 존재가 ~ 유한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인간 존재는 언제나 특정 역사, 사회, 관계 등 자신이 존재해온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가)의 3문단에서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자아가 되면 ~ 이를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나)의 5문단에서 ‘하이데거의 관점에 따른 교육은 ~ 사유하는 법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나)의 4문단에서 ‘하이데거는 흔히 객관적 사실이라고 ~ 서술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보았다’고 하였다. 즉, 학생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한 빛의 굴절의 개념과 원리는 객관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문단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으로 인한 선입견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빛의 굴절에 대한 지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이라는 점에서 선입견이라 할 수 있으며, 데카르트는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일 때 ‘비관여적 판단을 통해 진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2문단에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 그대로 신뢰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학생이 물이 든 컵 안의 막대가 꺾인 것을 보고 원래부터 꺾인 막대라고 생각한 것은 스스로가 갑작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성향에 의해 갑작한 현상을 실재라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4문단에서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 해석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학생은 수업 전에는 빛이 굴절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개념과 원리는 몰랐다고 하였는데, 수업 이후 빛의 굴절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했다고 하였다. 즉 학생이 수업 전에 비해 빛의 굴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것은 빛의 굴절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2문단에서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한다

는 것’을 ‘세계에 관여하는 것, 즉 세계 안에서 살며 삶의 현장에서 세계와 관련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세계’는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 영역, 즉 삶의 포괄적 환경을 일컫는다.’는 학생이 수심을 확인하며 빛의 굴절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은 것은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⑨는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라는 의미이고, 밀줄 친 부분의 ‘삼다’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하므로 적절하다.

① ⑨는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라는 의미이고, 밀줄 친 부분은 ‘눈, 비, 서리, 이슬 따위가 오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⑩는 ‘어떤 사정이나 사실, 현상 따위를 나타내 보이다.’라는 의미이고, 밀줄 친 부분은 ‘어떠한 사실을 말로 알려주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⑪는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이고, 밀줄 친 부분은 ‘앞에 오는 말이 수단이나 방법이 됨을 강조하여 나타낸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⑫는 ‘어렵거나 경험될 만한 일을 당하여 치르다.’라는 의미이고, 밀줄 친 부분은 ‘여러 사람을 청하여 음식을 차려 대접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과학 · 기술]

[22 ~ 25] <출전> 에우헤니아 칼나이, 「대기모델링, 자료동화 그리고 예측가능성」

22.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이해하기

3문단에서 ‘대기가 정해진 시간 간격 격자점 간 거리보다 더 멀리 이동하게 되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대기의 상태는 기압, 기온, 습도, 바람 등의 변수로 나타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대기 상태의 변화 양상을 연속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대기는 육면체의 공기 덩이들의 집합체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대기를 모의하는 정도는 분해능으로 나타내’고 ‘공간분해능과 시간분해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4문단에서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 설정은 ~ 변수의 값을 개별적으로 부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격자점마다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동일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대기의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는’ ‘방정식들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모의한다는 것은 방정식들의 근사해를 구하여 미래의 대기 상태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 방정식들은 ‘복잡하고 방대한 방정식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수치예보 모델을 가동하는 목적에 따라 모의할 대기의 영역을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모의 영역은 ‘지표면에 수직인 연직 방향으로 여러 층으로 나누어지고, 각 층은 위도와 경도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누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4문단에서 하단 경계에서는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상단 경계에서도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6문단에서 측면 경계에서는 ‘영역 외부의 대기 상태를 ~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하단 경계에서는 ‘대기와 지표면 간에 복잡한 에너지 교환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의 흐름을 반영하여 계산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5문단에서 상단 경계에서는 ‘연직 속도를 0으로 설정’여 모의한 결과, ‘영역 내부에서 에너지가 ~ 변수의 값이 왜곡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5문단에서 상단 경계에서는 ‘영역 외부로 ~ 되돌아오는 것으로 모의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5.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일반적으로 모델에 ~ 각각 두 배로 높’이면 ‘3차원 공간의 세 축과 ~ 전체 계산량은 2^4 배가 된다’고 하였다. 이미 20km로 설정된 C의 수평 방향의 공간분해능을 A와 동일하게 10km로 설정하면, C의 수평 방향의 공간분해능이 현재의 2배가 됨에 따라 연직 방향의 공간분해능과 시간분해능도 각각 현재의 두 배가 된다. 이에 따라 3차원 공간의 세 축과 시간 차원에서 각각 계산량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되어 C의 전체 계산량은 수평 방향의 공간분해능을 높이기 전의 2^4 배가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 많을수록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간분해능은 격자점 간 거리로’ 나타내며 ‘값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높’고 ‘공간분해능’이 ‘높을수록 대기를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수평 방향의 공간분해능이 높을수록, 연직 방향의 해상도는 연직 방향의 총수가 많을수록 대기를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의 수평 방향의 공간분해능은 10km로 C의 2배이므로 A의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C보다 높다. 그리고 A의 연직 방향의 총수는 80층으로 C의 2배이므로 연직 방향의 해상도가 C보다 높다. 따라서 A의 수평 방향의 공간분해능과 연직 방향의 공간분해능이 모두 C보다 높아 각각의 해상도 역시 C보다 높으므로, A가 C보다 대기 상태를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평 방향의 공간분해능을 ~ 시간분해능의 상한선으로 둔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대기의 최대 속도가 현재의 2배가 되어 2km/s가 된다면, B는 수평 방향의 공간분해능인 10km를 2km/s로 나눈 값인 5초를 시간분해능의 상한선으로 두어야 하므로, 현재 설정된 시간분해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반면에 D는 수평 방향의 공간분해능인 8km를 2km/s로 나눈 값인 4초를 시간분해능의 상한선으로 두어야 하므로, 현재 설정된 시간분해능을 다시 설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상단 경계를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영역 내부에 ~ 함께 적용한다’고 하였고, ‘최상층 고도가 ~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B의 최상층 고도는 50km로, D의 최상층 고도는 40km로 설정되어 있어, B와 D는 모두 상단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 에너지가 감쇠층에서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법이 주요하게 작용하므로 적절하다. ⑤ 6문단에서 ‘지역 모델’은 ‘전지구 모델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측면 경계 조건으로 활용한다’고 하였고 ‘이는 지역 모델과 ~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B와 D는 지역 모델이고, A와 C는 전지구 모델이므로 B와 D는 A나 C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측면 경계 조건으로 활용하므로 적절하다.

[사회]

[26 ~ 30] <출전> 신동운, 「형법총론」

26.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이해하기

3문단에서 법조경합의 개념 및 사례를 설명하고 있

을 뿐, 법조경합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형법에서는 한 사람이 저지른 ~ 일죄라고 하고’에서 일죄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의 ‘형법은 ~ 법 규범이다.’에서 형법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의 ‘이러한 점에서 ~ 형법의 기본 원리가 된다.’에서 책임주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어떤 사람이 한 개의 돌을 던져 ~ 상상적 경합이다.’에서 상상적 경합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이해하기

1문단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했으므로 ×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1문단에서 ‘이때의 구성요건이란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으로’라고 했으므로 ×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1문단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더라도 ~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라고 했으므로 ○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1문단에서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만 이를 ‘불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으므로 ○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2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A]에서 실체적 경합은 ‘각각의 죄에 선고될 형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처벌 원칙들을 마련하’여, ‘가장 무거운 ~ 형을 산정하는’ 가중주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경합하는 각각의 죄에 선고될 형을 단순 합산한 것에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A]에서 ‘단순 합산하면 범죄의 예방 효과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서 ‘별도의 처벌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A]에서 별도의 처벌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죄가 동일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A]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성립시킨 여러 개의 죄’일 때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A]에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를 가리켜서 경합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의 (나)에서 법원은 업무방해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았으므로 수죄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립하는 두 개의 죄 가운데 더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상상적 경합의 처벌 방식이므로, 법원은 B 씨가 두 개의 행위가 아닌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성립시켰다고 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의 (가)에서 검사는 A 씨를 신용카드부정 사용죄와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두 개의 죄를 성립시켰다고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문단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를 통해 신용카드부정 사용죄와 사문서위조죄 각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의 (가)에서 법원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이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A 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매출전표에 서명한 것이 신용카드부정 사용죄의 구성요건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문단의 ‘이 외에도 일죄에는 ~ 법조경합이라 부른다.’라는 것을 통해 법원이 두 죄를 법조경

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의 (가)에서 법원은 A 씨에게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3문단의 ‘이때에는 하나 또는 ~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것을 통해 A 씨에게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적용해도 완전하게 불법의 크기를 책임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의 (나)에서 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았으므로 B 씨의 범죄가 수죄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립한 두 개의 죄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이는 4문단의 ‘상상적 경합에 대해 ~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 성립한 여러 개의 죄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라는 것을 근거로 처벌을 판결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친구는 그를 친재라고 불렀다.’의 ‘부르다’는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부른다.’의 ‘부르다’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는 집 앞으로 택시를 불렀다.’의 ‘부르다’는 ‘청하여 오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그 가게에서는 값을 싸게 부른다.’의 ‘부르다’는 ‘값이나 액수 따위를 얼마라고 말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는 멀리 있는 친구를 손짓하여 불렀다.’의 ‘부르다’는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소설]

[31 ~ 34] <출전> 작자 미상, 「한조삼성기봉」

31.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그 신세가 불안함을 생각하니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에 편집자적 논평을 활용하여 인물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낸 부분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의 특성 파악하기

(b)에서 강왕은 ‘박복한 청상 훌어미 모습이 어찌된 일이오?’라고 하며 조수아의 외양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며 ‘자세히 곡절을 알고자 하오’와 같이 조수아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우울하였으나 ~ 없었다.’, ‘계파는 ~ 않았다.’를 통해 계파가 위오히를 해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곽후가 처음 인간 세계에 내려갔을 때 ‘강충의 꾀에 빠져 태자가 원통하게 죽’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옥황상제가 ‘강목왕 유수와 태음성 음후를 즉시 데려오라고 명하’고 ‘그들이 이르자’ ‘소원을 물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옥황상제가 남두성과 북두성에게 ‘세 사람의 윤회보응을 분명히 하라고 명령’한 이후 남두성과 북두성이 ‘서천여래를 청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또한 남서 땅에서 ~ 적지 않소.’를 통해 위오히가 남서 땅에서 공을 세우고 강왕을 병에서 구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의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강왕이 위오히에게 ‘태임, 태사의 덕을 ~ 내조를 잘하시도록 하오’라고 하는 장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

부정적 질서를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강왕이 자신의 입장을 위축시켜 바꾸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① 곽후가 ‘세 칸 초가집에서 ~ 시부모를 봉양’했으나 그 이후 유수에게 ‘현신짝처럼 버려져 억울함과 원통함’이 ‘뼈에 사무치’게 되었다는 것에서 여성 인물이 원통한 마음을 품게 된 원인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② 곽후가 ‘이번 윤회에는 음양을 바꾸어’ 자신은 ‘남자가 되고’, 유수는 ‘여자가 되게 하여 복수’하려는 소원을 비는 것에서 곽후가 남편이었던 유수와 서로 반대의 성별로 태어나고자 하는 이유가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③ 육황상제가 남두성과 북두성에게 ‘세 사람의 윤회보옹을 분명히 하라고 명령’한 장면과, ‘낭원 곽후와 강목왕 유수의 음양을 바꾸라고 명한 장면에서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여 인물의 부탁을 수용하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④ 조수아가 스스로를 ‘박명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분하고 원통하여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전생에 남편으로서 아내를 버린 유수였던 조수아가 환생 후 전생의 아내가 겪었던 심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35 ~ 38] <출전> 양귀자, 「쥐」

35.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그는 틀림없이 ~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슬쩍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등에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그’와 ‘김 실장’의 대화에 대한 반응을 ‘그’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 전의가 슬쩍 사라지는 기분이었다.’는 부분에 따르면 ‘그’의 예상과 다른 행동을 보인 쥐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이지 두려움을 보인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는 ‘자신의 온몸을 훑어오’는 ‘김 실장’의 시선과 ‘한 페이지 원고도 완성치 못한 자신의 무능’을 발견한 ‘그’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살찐 쥐’에게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는 ‘김 실장’이 ‘그’를 부른 호칭인 ‘미스터 정’이 드러나 있는데, ‘그’는 이로 인해 ‘낯을 붉’히고 있어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끈덕지게 캐묻’는 ‘김 실장’의 질문을 통해 ‘그’를 ‘질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의 ‘김 실장이 아랫사람을 ~ 그는 명청해졌다.’는 부분에서, ‘김 실장’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급작스럽게 달라진 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⑤는 ‘김 실장’이 ‘실눈을 뜨’면 ‘일은 이미 그른 거나 다름없’다는 부분을 통해, ‘그’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짐작하게 되는 단서임을 알 수 있고, ⑥는 ‘김 실장에게 당한’ ‘무능까지 겹’친 ‘하루 일 등을 감안한다면 대문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헛기침’을 하는 것이 ‘가당찮은 억지’라는 부분을 통해, ‘그’가 자신이 겪은 일에서 느낀 심정을 감추기 위해 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그’가 ‘소왕국의 평화’를 위해 ‘긴 한숨을 잊’고 ‘어설픈 흉내’를 내는 것은, ‘밖에서야 어쨌든 ~ 검객에 세도가여야 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자신을 향한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이지, 가족의 기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그’가 ‘동년배이거나 후배일 김 실장’에게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김 실장’의 나이를 어림하며 ‘빈 원고 용지’에 ‘37, 36, 35라고’ 쓰는 것은, ‘그’에 대한 ‘김 실장’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그’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그’는 쥐를 잡기 위해 ‘구석구석을 노려보’지만 ‘쥐똥과 쥐오줌 ~ 무기력한 슈퍼맨’이라는 부분에서, ‘그’의 무력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그는 문득 ~ 알 수가 없어져버렸다.’, ‘상무나 김 실장 앞에서 ~ 그 자신이 떠올랐다.’는 부분에서, ‘그’가 자신의 모습을 쥐에 투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상무나 김 실장 앞에서 ~ 그 자신이 떠올랐다.’, ‘바로 그런 자신이 ~ 웃음이 터져 나왔다.’는 부분에서, ‘그’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돌아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 · 고전수필]

[39 ~ 42] <출전> 류도관, 「사미인곡」
홍섬, 「한양궁궐도기」

39.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나)에서 ‘그러하나 눈으로 보면 ~ 뒤따르는 법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과 걱정스러운 일이 ~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에서 연쇄적 표현을 활용하여 관련 있는 상황을 연결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작품 속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가)에서 ‘시들고’를 통해 화자는 ㉠을 유한성을 지녔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만고의 새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글쓴이가 ㉡이 불변성을 지녔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의미 이해하기

㉡는 ‘그 문장’이 ‘아름답기야 하지만’ 임금을 경계하고 깨우치지 않아 ‘군주의 다스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임금의 선정을 널리 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아름답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는 임금이 ‘평소 그림을 펼쳐’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는 선왕들이 고초를 겪으면서도 ‘대궐 터’를 살펴본 행적을 언급하며 그 행적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는 ‘구중궁궐 깊숙한 곳을 벗어나지 않고도 면 곳의 산수와 드넓은 대궐을 한눈에 명료하게 보고자’하는 임금의 의도가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는 ‘왕위를 계승하는’ ‘자손’인 후대 왕이 ‘병풍’을 보며 현재 임금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을 것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때가 ‘답답하고 그리운 때’라는 것에서 현실이 힘듦을 알 수 있고, ‘추당에 만부용’ 되어 ‘기다리려’ 한다는 것에서 그러한 현실을 견디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무너질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훗날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정사를 그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미나리’를 임금에게 ‘드리고자’ 했지만 ‘천리에 뉘 전할고’라고 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임금에게 닿을 수 없는 모습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장상사 한 곡조’의 슬픈 소리 때문에 ‘내 마음 일렁인다’는 것에서 서러운 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성상께서 병풍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것’의 이유는 ‘홍망을 생각하며’ ‘안일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병풍’이 ‘성상의 안목을 기르고’ ‘덕을 닦’아 임금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 ‘첫참’이 들어 ‘옥루 높은 곳’에 가 임금을 만나 ‘정성을 다 기울여 말씀’을 드린다는 것에서 꿈에서도 임금을 만나 뵙고 싶다는 간절한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고, (나)에서 ‘송경’과 ‘이덕유’의 글에 ‘연연하는 이유’는 ‘임금을 사랑하는 신하의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에서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시]

[43 ~ 45] <출전> 신석정, 「고운 심장」
허수경, 「스승의 구두」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별’, ‘하늘’, ‘밤’ 등의 특정 시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나)에서는 ‘구두’, ‘상가’, ‘스승’ 등의 특정 시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은 ‘하늘’의 고요한 정도를 수식하는 표현일 뿐 ‘하늘’이 ‘별’로 인해 ‘얼어붙’은 정적인 상태를 강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심장 밑으로 흐르던’ ‘난류’가 미미하고 약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③ ㉢은 ‘푸른 별’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떨어질’ 것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④ ㉣은 ‘구두’가 계속 ‘낡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⑤ ㉤은 ‘스승의 서재’라는 공간이 충분히 오래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스승’이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지만 ‘낡은 구두처럼’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과 ‘스승’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스승이 낡아가는 것인가’라고 언급하는 것에서 스승이 현실을 도와시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으나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하는 것에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현실로 인한 절망적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너’가 ‘아직 고운 심장을 지녔’다는 것에서 생명력을 지닌 상징적 대상을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냉혹한 현실 극복에 대한 화자의 희망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장대동 중앙시장’에 ‘하룻밤새 또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에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밤이 이대로 얹만 년이야 갈리라구’라는 것에서 부정적인 현실의 변화에 대한 화자의 염원을 짐작할 수 있고, (나)에서 ‘새로운 모습’의 ‘모든 것들이’ ‘먼저 낡아갈 것인가’라는 것에서 새로운 모습의 현실도 변화될 것이라는 화자의 문제의식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